Vol. 138 | 2007.3.16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2월, 실업률 감소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
- 한국판 서브프라임 충격에 대한 대비 필요

경영 노트
- 글로벌 기업들의 '그린(Green) 마케팅' 경쟁

사회 트렌드
- 갈길 먼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 놀고 있는 20대, 일하는 40대

저널 브리프
- 경고등 켜진 인도의 과열 경제

洗心錄
- 위대한 천재도 도움이 필요했다!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2月, 실업률 감소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

■ **2월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3.7%를 기록하였으나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고용의 질은 악화됨**

- 통계청의 2월 고용 동향에 의하면,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만 2,000명 감소한 86만 1,000명을 기록
-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실업자로 볼 수 있는 구직단념자의 수는 14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증가하였음
-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한 취업자의 숫자는 1,896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5,000명 감소하였음

■ **실업률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상은 현재의 고용 문제가 단순히 경기 부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판 서브프라임 충격에 대한 대비 필요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부실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이 우려됨**

- 이러한 우려는 비은행금융기관(상호저축과 상호금융 등)들의 담보대출인정비율이 은행 및 보험사에 비하여 10~20% 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동 기관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도 미비하기 때문임
- 미국의 전체 모기지에서 서브프라임 모지지의 비중은 약 22%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44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6.1%를 차지하고 있음

■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약 9%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 1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글로벌 기업들의 '그린(Green)마케팅' 경쟁

■ **월마트, GE 등 세계적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각종 소송을 사전 방지하고 친환경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린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기업들의 그린마케팅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전망

■ **글로벌 기업들은 그린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자사의 사업구조 및 역량에 부합되는 친환경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불량쓰레기 제로 계획'을 세우고, 납품업체와 자사점포에서 재생 가능한 재료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독려함
- GE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2005년 7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매년 투자액을 늘려 2010년엔 15억 달러까지 투입할 계획임

< 주요 글로벌기업들의 그린마케팅 투자 움직임 >

기업	내용
월마트	불량쓰레기 제로화, 에너지효율 점포 확대
GE	화석연료 사용자제 및 온실가스 감축선언 및 촉구 '엔론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회사 인수
알코아, BP, 듀폰, 캐터필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도입 건의
소니, 나이키, IBM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1,000만톤 감축 결의
유니레버, P&G, 펩시콜라	에너지 친화형 세제 및 용기 개발
버진그룹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판매에 30억 달러 투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대체에너지 개발업체 투자 확대

■ **단기적 주주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그린마케팅은 주요 기업전략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임**

- 친환경 경영이 궁극적으로 주주들의 장기 이익은 물론 단기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기업의 친환경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며, 그린마케팅은 비용 발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갈길 먼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 **아시아 국가 간 여성 성취지수 비교 결과 한국은 13개국 중 12위로 나타남**

-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13개국 남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종합지수 65.1로 1위인 뉴질랜드(89.9)와 큰 차이를 보임
- 2위는 필리핀(87.4)이며 대만(82.2)이 그 뒤를 따르고, 중국(75.6)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고 일본은 46.9로 우리나라보다 낮음

■ **연도별 절대적 평가결과가 향상되고 있어 긍정적인 미래가 예상됨**

- 종합 지수가 2005년 45.4, 2006년 65.0에 이어 65.1로 상승세를 보임
- 특히 여성의 노동참가율 지수는 작년 72.9에서 73.1로, 관리직 진출비율 지수도 32.7에서 52.8로 높아짐
-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로는 입증되고 있음

□ 놀고 있는 20대, 일하는 40대

■ **20, 30대 취업자 수는 계속 낮아져 현재 최저 수준인 반면 40대 이상은 계속 증가되고 있음**

- 20대 취업자는 21년 만에 가장 낮은 300만 명 규모이며, 30대 취업자 비율도 1995년 24.6%, 2003년 19.6%, 2006년 17.5%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반면 4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은 1995년 20.9%에서 2003년 27.2%, 2006년에는 27.7%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

■ **절대적인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젊은 층의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임**

- 20, 3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450만 8,000명으로 60세 이상보다 많아 양질의 젊은 노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임
- 많은 20, 30대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준비를 하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하고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고 있는 상황임

□ 경고등 켜진 인도의 과열 경제*

■ **(개요) 인도는 90년대 초반부터 추진했던 개혁의 결과로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곳곳에서 과열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

- 교역 장벽을 낮추고 자본시장을 자유화 하는 등 인도 정부의 적극적 개혁 추진으로 인도의 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률이 크게 높아짐
- 하지만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개혁이 없다면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 하다고 경고함

■ **(과열 현상) 물가, 임금, 경상수지 등에서 경제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물가)** 인도의 도매물가 상승률은 6%로, 중국의 2.8%보다 높으며 인도 중앙은행이 정한 인플레 상한선(5.5%) 보다 높은 수치임
- **(임금)** 인도 기업의 99%가 적정 생산량을 초과하여 공장을 돌리고 있어 기술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임금이 급등하고 있음
- **(은행 대출)** 은행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증가율은 연 30%이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84%, 모기지 대출은 32% 늘어나 버블이 우려됨
- **(부동산·주식)** 인도 주요 도시의 집값은 지난 2년간 두 배 이상 뛰었고, 주식시장은 최근 4년간 4배 이상 올라 중국 증시 상승률을 웃돌고 있음
- **(경상수지)** 2004년 상반기 GDP의 4% 수준이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3분기에는 GDP 3%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로 반전됨

■ **(과제) 경제의 과열 위험성을 줄이고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로서, 공공부문 개혁과 투자를 통한 공급 능력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음**

- 인도의 형편없는 도로, 전력, 식수 등의 인프라 확충과 교육 등 공공 서비스 보강, 규제 일변도의 관련 법규 정비 등이 시급함
-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절대 빈곤층, 성인 여성 인구 절반에 달하는 높은 문맹률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 요구됨
- 공공부문 개혁에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 아래 공공부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함

---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7.3.5)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위대한 천재도 도움이 필요했다!

2006년 12월 미국의 과학 잡지인 <디스커버>(Discover)는 저명 과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자금까지 출판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분야의 책 25권을 선정해서 발표하였다.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은 다윈의 책인 "비글호 여행기"(The Voyage of the Beagle)와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ices)이었고 그 다음 3위로 뉴턴이 1687년에 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혹은 "프린키피아"(Principia)가 선정되었다.

위에 언급한 뉴턴의 책이 출판된 해를 최소한 물리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던 1905년과 비견되거나 더 의미 있던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도 지구로부터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들이 그가 만든 원리를 바탕으로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가 인류 역사에 미친 업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뉴턴은 어쩌면 천재라는 말을 뛰어넘는 인물이었는지도 모른다. 1666년 페스트의 창궐을 피해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 미적분학, 광학, 만유인력의 법칙 등의 기초를 완성하였고 5년 뒤 케임브리지로 돌아왔을 때는 그의 지도교수가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물러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그의 위대성은 그의 논리 전개에 필요한 방법론인 미적분학을 스스로 발명해 가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들어난다.

이런 천재에게도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독불장군적인 태도였던 것이다. 미적분학 발명을 놓고 독일의 라이프니쯔와 벌인 치졸하기까지 했던 경쟁은 과학사에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는 친구도 없었고 그의 하인에 따르면 그의 케임브리지대학 강의는 너무 어려워서 보통 수강생이 2명을 넘지 않았는데 어쩌다 학생들이 모두 결석하면 빈 강의실에서 그날의 강의를 혼자서 마치곤 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

는 자존심 때문에 그에게 학문적인 영감을 준 다른 학자들의 지적인 도움을 인정하는 데 특히 인색하였다. 당시 물리학에 관심이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 운동의 3법칙"이 없었다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뉴턴은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세상은 그가 떨어지는 사과의 도움만 받았다는 것이 이미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그가 남긴 노트에서 뉴턴은 자기가 이룬 업적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좀 더 앞을 내다보았을 뿐이다"**라는 말로 비유하였다. 여기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거인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케플러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뉴턴 같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천재도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훌륭한 업적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물론 그는 천재였기 때문에 그가 발전하는 데 있어 지적인 도움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른다. 당연히 그 보다 못한 범인(凡人)들에게 있어서는 지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도움이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도움이 없다면 자기 발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도움을 찾고 도움을 주는 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을 뉴턴의 인생은 잘 보여준다.

**"진정한 겸손은 모든 미덕 중에서 가장 낮지만
깊고 굳건한 기초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 : 영국의 정치사상가